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2월 7일 석간(2. 7.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	윤소원 팀장/이소향 사무관/김민영 전문위원
			02-6943-1362 / 1336 / 1392
	배포일시	2018. 2. 1. / 총 11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 첫해('15년) 대비 마지막해('17년) 거래금액 10배(631억 원→6,123억 원)
◇ 거래가격 2배(1만 1,007원→2만 879원), 거래량 5배(573만 톤→2,932만 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2017년)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07원, 2016년 1만 7,179원, 2017년 2만 879원, 2018년(1월 1일부터 8월 9일* 까지) 2만 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 1차기간의 거래 종료일은 이의신청 업체에 한하여 8월 9일임

○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억 원, 2018년 8,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 7,477억 원에 달했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 8,629만 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 225만 톤, 2017년은 잠정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 8,864만 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 1,815만 톤, 19%), 석유화학(1억 5,580만 톤, 9%), 시멘트(1억 3,401만 톤, 8%), 정유(6,286만 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 3만 4천 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올해 2월 7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을 통해 그림파일(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보고서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결과를 요약하고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담은 국·영문 요약 보고서를 올해 3월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라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운영결과보고서 표지.

2. 운영결과보고서 목차 및 정보 요약.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김민영 전문위원(☎ 02-6943-1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운영결과보고서 표지**



붙임2 **운영결과보고서 목차 및 정보 요약**

목차	세부 목차
Ⅰ. 서론	**1. 배출권거래제 개요** 1) 제도 개요 2) 운영 체계 3) 배출권거래제 지정 범위 및 운영 과정 **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권 총수량**
Ⅱ. 배출권 할당 결과	**1. 사전할당** **2. 최종할당** 1) 신규진입 2) 조기감축실적 3) 할당조정 4) 할당취소 5) 권리의무승계
Ⅲ. 배출권 제출 결과	**1. 배출량 인증** **2. 배출권 제출** 1) 배출권 거래 2)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매수 3) 유연성 메커니즘 **3. 예비분**
Ⅳ.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1. 전체 시장 거래 실적** 1)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2) 거래 규모 상세 분석 3) 거래 가격 상세 분석 **2. 배출권별 거래 실적** 1) 할당배출권(KAU15·KAU16·KAU17) 2) 상쇄배출권(KCU15·KCU16·KCU17) 3)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Ⅴ. 할당대상업체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1) 배출권거래제 인식 및 평가 2)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이행 3)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및 전망 4)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목차	주요 내용
Ⅰ.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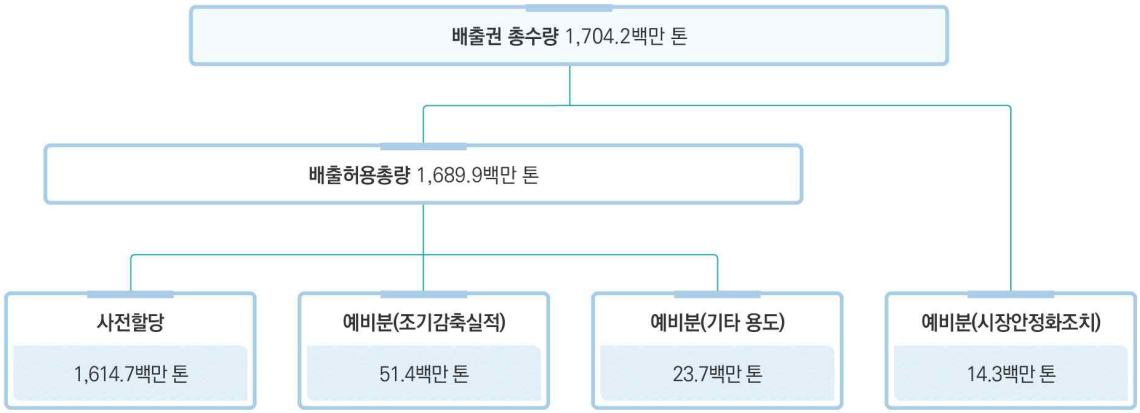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최초 배출권 총수량 1,686.5백만 톤, 이중 정부 보유 예비분은 88.8백만 톤, 사전할당량은 1,597.7백만 톤으로 설정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따른 '17년 할당계획 변경)

- 배출권 총수량은 당초보다 17.6백만 톤 증가한 1,704.2백만 톤, 예비분은 61.7만 톤 증가한 89.4백만 톤, 사전할당량은 17.0백만 톤 증가한 1,614.7백만 톤으로 변경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상 할당량>



<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및 부문별·업종별 할당량 >

(단위 : 백만 톤)

당초						변경			
부문	업종		'15년	'16년	'17년	총량('15-'17년)	부문	업종	'17년	총량('15-'17년)
배출권 총수량			573.5	562.2	550.9	1,686.5	배출권 총수량		568.5	1,704.2
사전할당량			543.2	532.6	521.9	1,597.7	사전할당량		538.9	1,614.7
예비분			88.8				예비분		89.4	
전환	발전·에너지		250.2	245.3	240.4	735.9	전환	발전에너지	225.9	742.4
								집단에너지	9.2	
산업	-		-	-	-	-	산업	산업단지	11.9	742.4
	광업		0.2	0.2	0.2	0.7		광업	0.2	0.7
	음식료품		2.5	2.5	2.4	7.5		음식료품	2.4	7.5
	섬유		4.7	4.6	4.5	13.8		섬유	4.5	13.8
	목재		0.4	0.4	0.4	1.1		목재	0.4	1.1
	제지		7.6	7.5	7.3	22.4		제지	7.5	22.6
	정유		19.2	18.8	18.4	56.3		정유	18.6	56.5
	석유화학		48.9	47.9	46.9	143.7		석유화학	48.4	145.1
	유리·요업		6.3	6.1	6.0	18.4		유리	2.4	18.6
								요업	3.8	
	시멘트		43.5	42.7	41.8	128.0		시멘트	43.5	129.7
	철강	공정 외	103.3	101.3	99.2	303.8		철강	100.9	306.8
		F가스공정	0.7	0.7	0.6	2.0				
	비철금속		6.9	6.8	6.6	20.3		비철금속	7.9	21.6
	기계		1.4	1.4	1.4	4.2		기계	1.4	4.2
	반도체	공정 외	8.3	8.1	7.9	24.3		반도체	11.0	31.7
		F가스공정	2.2	2.2	2.1	6.5				
	디스플레이	공정 외	6.7	6.6	6.4	19.7		디스플레이	10.3	28.4
		F가스공정	2.4	2.4	2.3	7.2				
	전기전자		2.9	2.8	2.8	8.5		전기전자	3.2	8.9
	자동차		4.2	4.2	4.1	12.5		자동차	4.1	12.5
	조선		2.7	2.6	2.6	7.9		조선	2.6	7.9
건물	통신		3.1	3.0	3.0	9.1		통신	3.0	9.1
	건물		4.0	3.9	3.9	11.8	건물	건물	4.5	12.4
수송	항공		1.3	1.3	1.2	3.8	수송	항공	1.3	3.8
공공·폐기물	수도		0.8	0.8	0.7	2.3	공공·폐기물	수도	0.7	2.3
	폐기물		8.9	8.7	8.6	26.2		폐기물	9.5	27.1

II. 배출권 할당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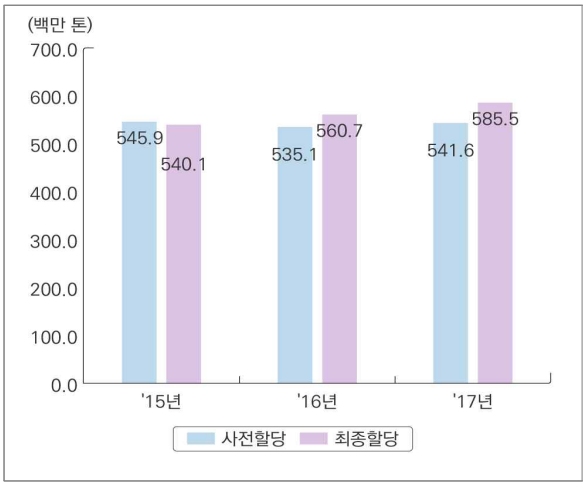
(사전할당)

- 525개 업체에 총 1,622.6백만 톤('15년 545.9백만 톤, '16년 535.1백만 톤, '17년 541.6백만 톤)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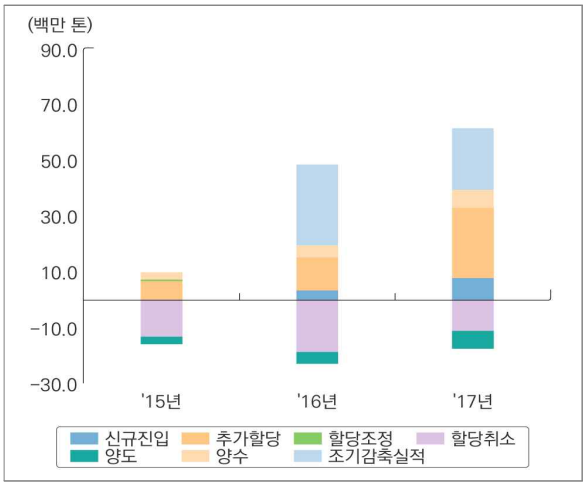
(최종할당)

- 최종할당량은 1,686.3백만 톤('15년 540.1백만 톤, '16년 560.7백만 톤, '17년 585.5백만 톤)으로, 사전할당량(1,622.6백만 톤) 대비 63.7백만 톤(4%) 증가하였고, 매년 전년 대비 4%씩 증가
- 사전·최종할당량 간의 차이는 조기감축실적 및 추가할당(각각 최종할당량의 3%), 할당취소(-2%), 신규진입(각각 1%) 순으로 주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 및 최종할당량 >



< 이행연도별 할당량 변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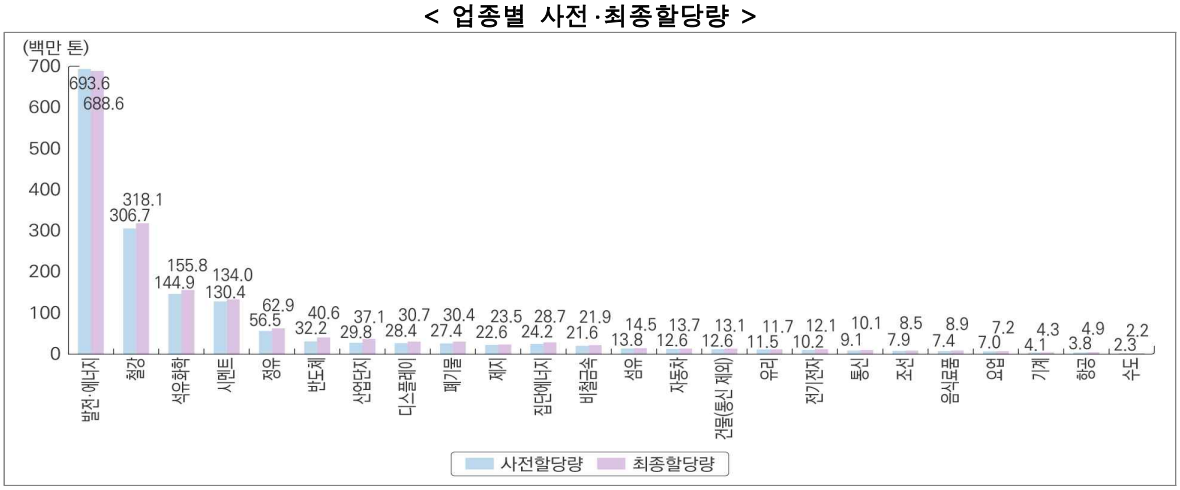


< 이행연도별 할당 결과 >

구분		사전 할당량 (A)	이행연도 할당량 변동(B)							최종 할당량 (A+B)	할당량 변화율
			신규 진입	조기 감축 실적	할당조정		할당 취소	권리의무승계			
					추가 할당	할당 조정		양도	양수		
총량 (백만 톤)	'15년	545.9	-	-	6.4	0.9	-13.1	-2.6	2.6	540.1	-1%
	'16년	535.1	3.3	29.4	11.8	-0.3	-18.6	-4.1	4.1	560.7	5%
	'17년	541.6	7.7[1)]	22.0	25.1	-0.6	-10.3	-6.6	6.6	585.5	8%
	합계	1,622.6	11.0	51.4	43.3	-	-42.0	-13.2	13.2	1,686.3	4%
업체수 (개)	'15년	525	-	-	63	1	211	23	24	522	-
	'16년	525	44	336	161	1	249	35	36	564	-
	'17년	525	78[1)]	184	337	1	269	56	54	592	-

- 최종할당을 많이 받은 업종은 발전·에너지(688.6백만 톤), 철강(318.1백만 톤), 석유화학(155.8백만 톤), 시멘트(134.0백만 톤), 정유(62.9백만 톤) 순이었으며, 반대로 최종할당을 적게 받은 업종은 목재(1.2백만 톤), 광업(1.7백만 톤), 수도(2.2백만 톤), 기계(4.3백만 톤), 항공(4.9백만 톤) 업종임

< 업종별 사전·최종할당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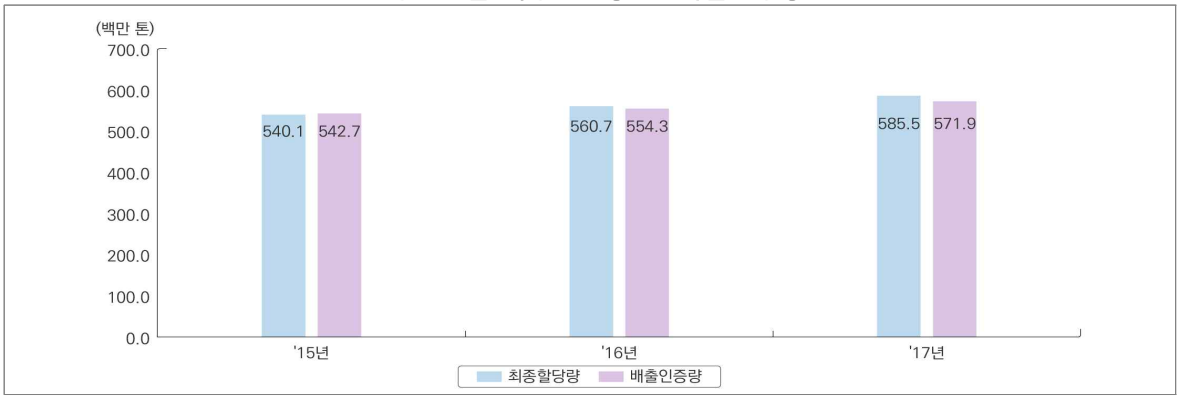


III. 배출권 제출 결과

(배출량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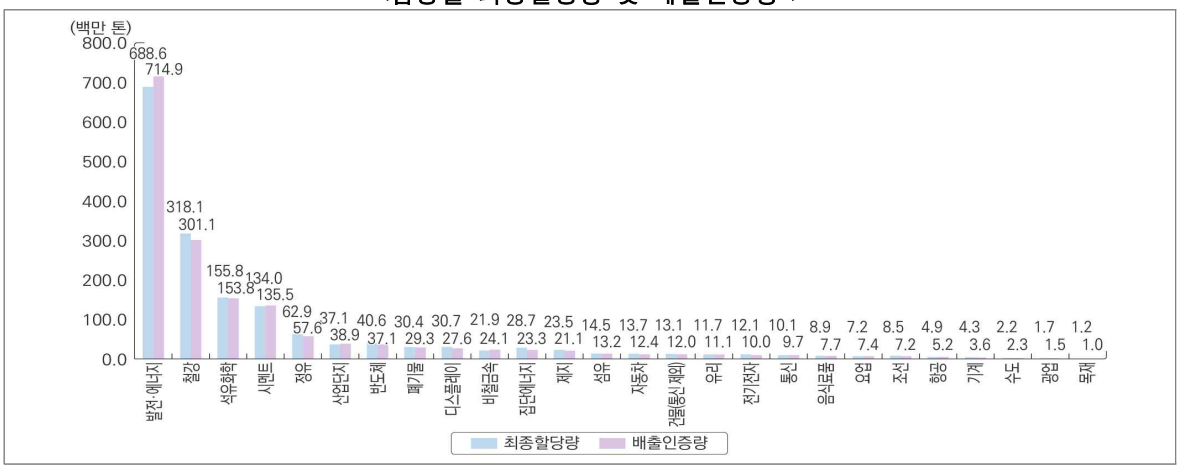
- 배출인증량은 1,668.9백만 톤으로 할당계획상의 배출허용총량(1,689.9백만 톤) 대비 20.9백만 톤(1%), 최종할당량(1,686.3백만 톤) 대비 17.4백만 톤(1%) 적은 수준
- '15년 542.7백만 톤(522개 업체), '16년 554.3백만 톤(560개 업체), '17년 571.9백만 톤(591개 업체)으로 '16·'17년 배출인증량은 전년 대비 각각 2%·3% 증가하였으나, 최종할당량 증가율(4%·4%)보다는 낮은 수치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배출인증량 >



- 배출인증량이 많은 업종은 발전·에너지(714.9백만 톤), 철강(301.1백만 톤), 석유화학(153.8백만 톤), 시멘트(135.5백만 톤), 정유(57.6백만 톤) 순이었으며, 적은 업종은 목재(1.0백만 톤), 광업(1.5백만 톤), 수도(2.3백만 톤), 기계(3.6백만 톤), 항공(5.2백만 톤)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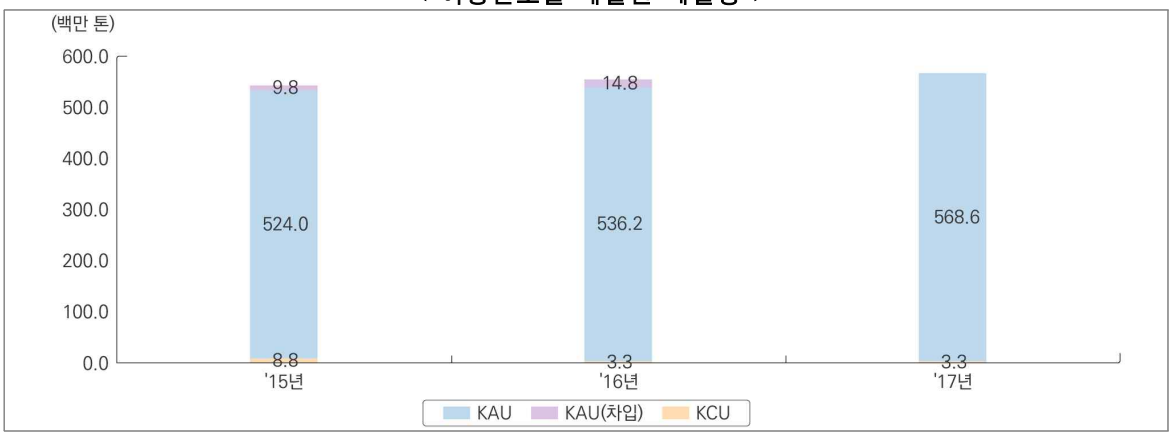
<업종별 최종할당량 및 배출인증량 >



(배출권 제출)

- 배출권 제출량은 배출인증량인 1668.9백만 톤이어야 하나, 배출인증량 대비 3.4만 톤 모자란 1,668.9백만 톤(KAU 1,653.5백만 톤, KCU 15.4백만 톤)이 제출됨
- 총 3개 업체('15년 1개, '17년 2개)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해당 업체 과징금(시행령 제42조) 부과)

< 이행연도별 배출권 제출량 >



(예비분)

- 예비분 총 89.4백만 톤의 86%(76.4백만 톤)를 사용하고, 기타 용도 예비분 일부를 제외한 잔여량은 할당위원회 결정을 통해 배출권등록부에서 폐기됨

< 예비분 용도별 배출권 수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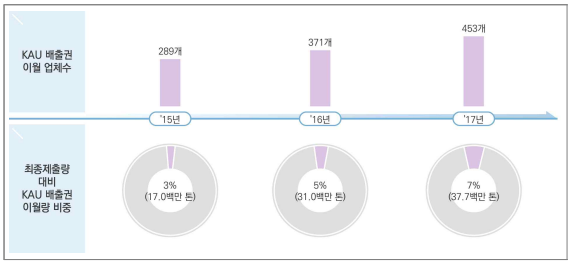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구분	조기감축실적	기타 용도	시장안정화조치	총계
예비분 용도별 배출권 수량 총계	51.4(100%)	23.7(100%)	14.3(100%)	89.4
계획기간 사용량	51.4(99.9%)	20.2(85%)	4.9(34%)	76.4
계획기간 이후 잔여량	0.0002(0.0004%)	3.6(15%)	9.4(66%)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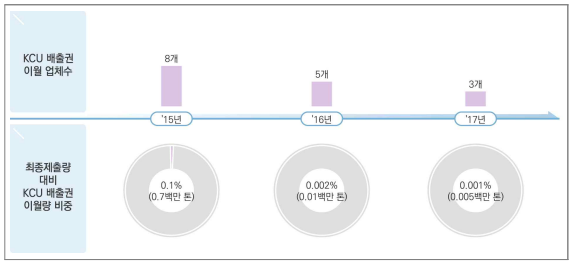
(배출량 이월)

- '15년 배출권 이월량은 17.0백만 톤이었으며, '16년은 31.0백만 톤, '17년은 37.7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이월량 계속 증가('16년 82%, '17년 21%)
- 특히,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된 마지막 이행연도 이월량 37.7백만 톤은 제2차 계획기간 사전할당량(1,643.0백만 톤)의 2%로, 제1차 계획기간의 추가할당량(사전할당량의 3%) 수준에 해당

< 이행연도별 KAU 배출권 이월량 및 업체수 >



< 이행연도별 KCU 배출권 이월량 및 업체수 >



IV.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전체 시장 거래 규모)

- 제1차 계획기간 거래기간('15.1.1.~'18.8.9.) 동안 장내·외 거래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배출권(KAU15·KAU16·KAU17·KAU18, KCU15·KCU16·KCU17·KCU18, KOC)의 총 거래 규모는 86.2백만 톤*, 연도별로는 '15년 5.7백만 톤, '16년 11.9백만 톤, '17년 29.3백만 톤, '18년 39.2백만 톤임(전년 대비 208%, 246%, 134%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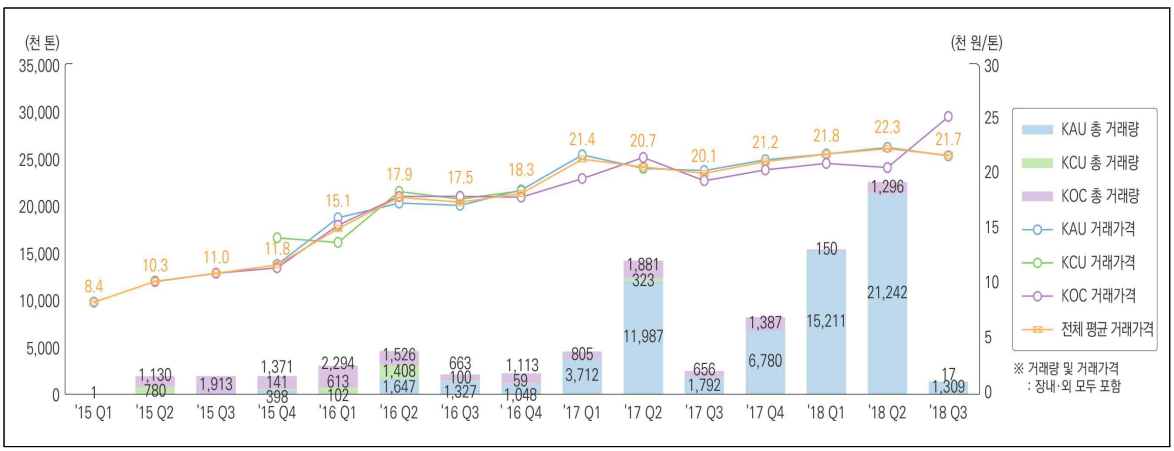
  * 1차 계획기간에 거래된 KAU18·KCU18 거래량 제외 시 75.1백만 톤

- 배출권별로는 KAU 66.6백만 톤, KCU 3.4백만 톤, KOC 16.2백만 톤 거래(각각 77%, 4%, 19%)
- 장내·외 각각 37.5백만 톤, 48.7백만 톤이 거래되어 44%, 56% 비중 차지

(전체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 추이)

- 동 기간 전체 배출권의 장내·외 평균 거래가격은 20,279원으로, '15년 톤당 11,007원에서 '16년 17,179원, '17년 20,879원, '18년 22,127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156%, 122%, 106%씩 증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5년 거래 초기 평균 거래가격 대비 두 배 상승한 가격에 거래 마감

<전체 배출권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V. 할당대상업체 설문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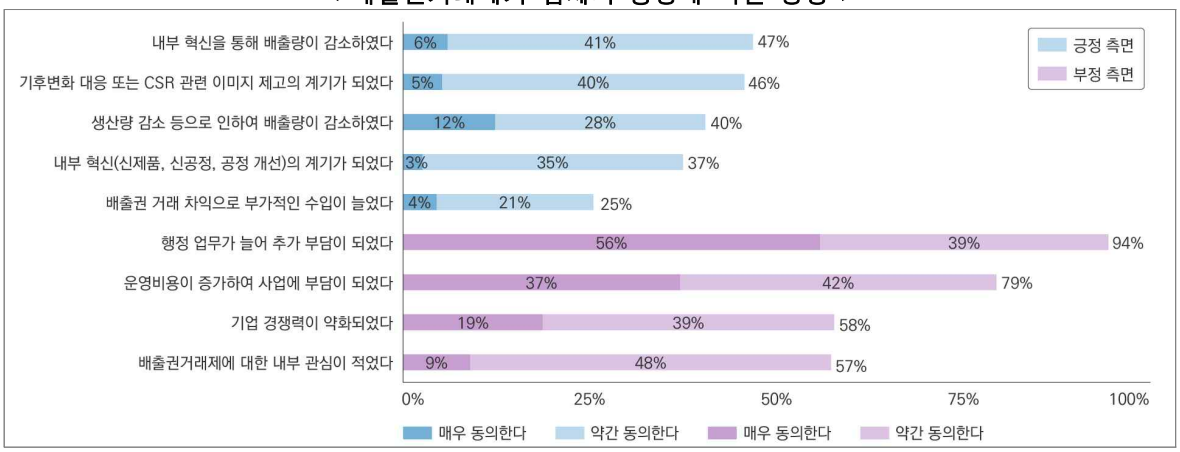
(설문조사 개요)

- '18.8.1~31 한 달간 553개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 이해관계자 130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제도 개선 관련 1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총 267개 업체(48%), 외부 이해관계자 46명(35.4%)이 참여

(배출권거래제 인식 및 평가)

- 내부 혁신을 통한 배출량 감소(47%), 기업 이미지 제고(46%), 내부 혁신의 계기(37%), 배출권 거래를 통한 부가 수입 발생(25%) 등 긍정적 평가보다는 행정 부담(94%), 운영비용 증가(79%), 기업 경쟁력 약화(58%) 등 부정적 평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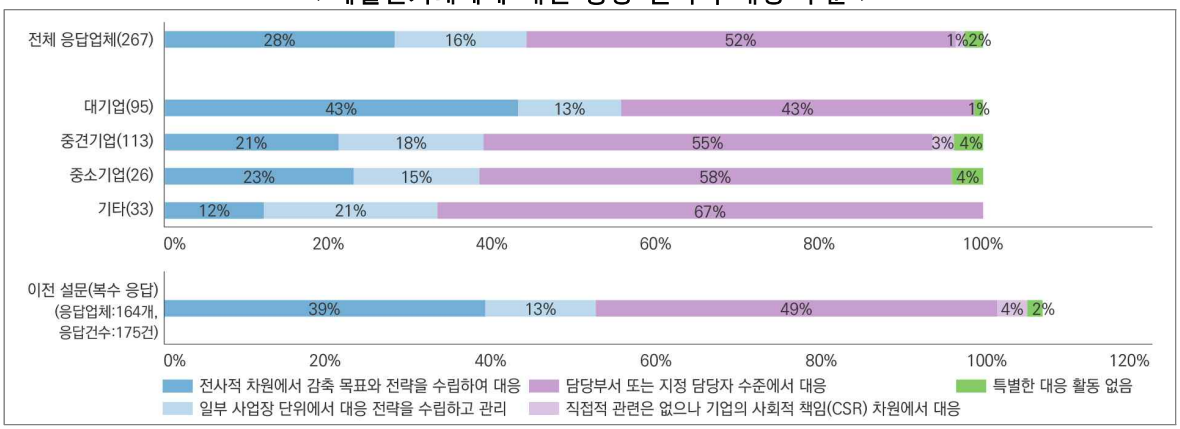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 >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이행)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영·전략적 측면의 대응은 이전 설문과 비슷하게 전사 차원(28%) 또는 일부 사업장 단위(16%)보다 담당부서 혹은 지정 담당자 수준의 대응·관리(52%)가 우세하였으나, 업체 규모별 기준에서는 대기업군이 중견·중소기업군보다 전사 차원(43%)의 대응·관리를 두 배 가까이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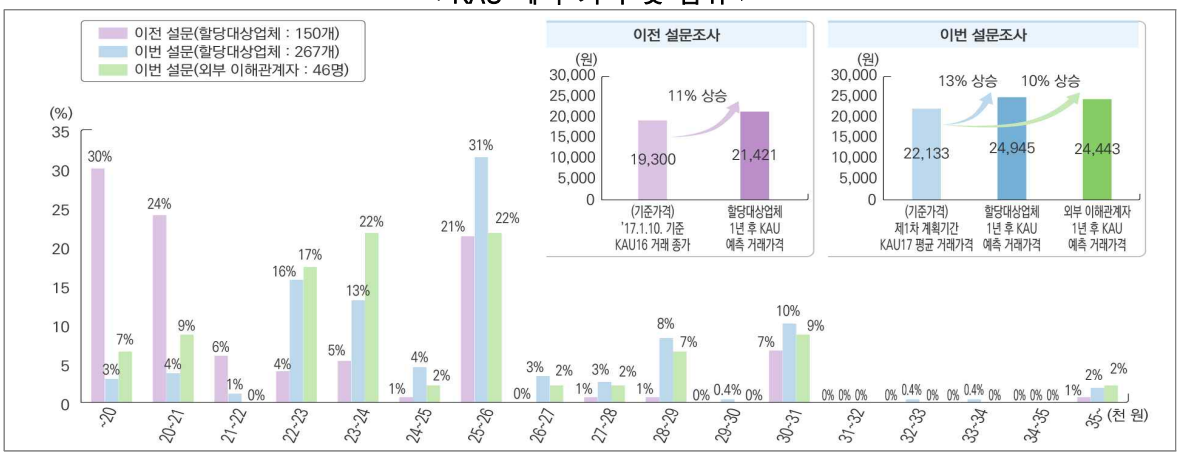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영·전략적 대응 수준 >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및 전망)

-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응답업체의 76%(204개)로 30%에 불과하였던 이전 설문조사 대비 크게 증가(배출권거래소를 통한 장내 거래 비율 또한 67%에서 78%로 상승)
- 1년 후 배출권 가격 예측의 경우 이전 설문조사(62%)에서 소폭 상승한 69%의 응답업체가 상승 전망, 신규 추가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우 52%가 상승 전망
- 할당대상업체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배출권 예측 평균가격은 기준가격(제1차 계획기간 KAU17 평균 거래가격 22,133원) 대비 각각 13%(2,812원), 10%(2,310원) 상승한 24,945원, 24,443원으로 가격 상승 예측 비율은 이전 설문(11%, 2,121원)과 비슷

< KAU 예측 가격 및 범위 >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 할당대상업체와 외부 이해관계자 공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각각 63%, 41%)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41%, 37%), 정보 불균형 해소(32%, 33%)를 우선적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안
- 특히 할당대상업체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였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우, 해외 상쇄배출권·외부사업 인정 범위 확대 및 유상할당량 확대 등에 대해 할당대상업체 대비 비교적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응답

<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향 >

